

‘나심비’에 아낌없이 지갑 여는 2030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운동, 취미, 여행 등에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는 소비 성향이 2030세대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도 이들을 겨냥해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는 등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 ‘나심비’ 열풍의 원인이 이들의 성장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나심비는 ‘나’, ‘심리’, ‘가성비’의 합성어로 개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소비 풍토를 말한다.

지난 2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소비의 중심이 되면서 소비 경향이 변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을 찾아 해마다 가성비를 따지던 지난날과는 달리 ‘가심비’(가격 대비 만족감 비율), 더 나아가 ‘나심비’로 옮겨졌다. ‘가성비’와 ‘가심비’는 가격이 중요한 소비라면 ‘나심비’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

실제 최근 롯데멤버스가 발표한 전년 동월 대비 유통영역별 엘포인트 소비지수에 따르면 고가의 명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백화점 소비가 5.7% 상승했다. 또한 나를 위한 가치소비가 증가하면서 게이밍 헤드셋, 비디오 게임기, DSLR 카메라 등 취미가전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성장 환경을 지적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이 발달한 환경에서 자라 과거 세대와는 다르게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며 여러 사람과 수평적으로 의사소통했다.

이는 개인의 의식 구조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쳐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특성을 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 심리 전문가는 “요즘 세대들이 심리적 결핍을 느끼다 보니 심리적 만족감에 더욱 이끌리는 것 같다.”며 “3~4인으로 구성된 핵가족에서 맞벌이 부부 밑에서 자란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르게 물질적 풍요로움은 누렸지만 그에 상응하는 심리적 풍족함은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그렇게 자란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좁은 취업문과 불만족스러운 직장 생활 등으로 계속해서 결핍된 심리적 만족감을 소비 행위를 통해 채워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 자연감소, 올해부터 시작 예상보다 10년 앞서

전쟁이나 대기근, 전염병 등과 같은 재난 상황이 아닌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반도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초유의 상황이 내년에 찾아온다.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내년 출생아가 만 40세가 되는 2060년 전후엔 전체 인구가 4,000만 명 전후로 줄고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 한 명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자녀나 부모 부양 부담을 지게 된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최근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유출입 추이를 토대로 지난해 5,160만7,000명이던 한국 인구가 이르면 올해(2019년) 5,165만4,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이듬해(2020년) 5,164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절벽은 갈수록 더 가팔라진다. 현 추세라면 2034년엔 5,0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60년 전후엔 4,000만 명 선도 무너진다.

당장 올해부터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올해 출생아 수 전망은 31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사망자 수 32만7,000명을 밑돈다. 그나마 최근 국제순유입이 이뤄지고 있어 전체 인구 감소

시기가 약간 늦춰지는 것이다.

인구 감소시기가 9년이나 앞당겨진 것은 저출산 풍조 탓이다. 한국의 지난해는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보기 힘든 0.98명에 그쳤다. 통계청은 이 추세라면 2021년 출산율이 0.78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인구 감소도 감소이지만 이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을 위협한다. 한국인 평균 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 나이는 2017년 42.0세에서 2067년 62.2세 전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자연스레 15~64세 사이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2067년 1,784만 명까지 줄어들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4%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2067년엔 생산연령인구 한 명이 1.2명 전후의 자녀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엔 한 명당 0.37명만 부양하면 됐다.

김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장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연금·복지 지출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교사·학생 수도 바뀌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